

특 집

2008 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

2007년 4월 시행된 「독서문화진흥법」의 제2조에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안)을 준비하고, 곧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한출판문화협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한국출판연구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하였다. 특히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에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지자체, 교육계, 산업계, 도서관계, 출판계,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우리사회전반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으는 등 그야말로 민관이 함께 하는 열정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도서관문화』 6월호에서는 2008서울국제도서전 전문인의 날 세미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의 주제발표자료를 수록함으로써 향후 발표될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에 대해 도서관인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해를 돕고자 한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독서문화진흥정책

최장현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사무관)

1.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의의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될 국민 독서문화 진흥정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계부처(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방부, 법무부 등)와 지자체(시·도)는 동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3월 말까지 당해연도의 「독서문화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각 실정에 맞는 독서진흥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독서문화 활성화로 국민의 정서를 함양시키고, 독서를 통해 자기 주도적 평생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지적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 기본계획이 추구하는 목적이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근거 및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다.

- 근거 :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의 최초 수립년도는 2008년으로 함(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2항)
- 추진경과
 - 「독서문화진흥법」 제정·시행('07.4.5)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분법
 - 독서진흥위원회 구성('07.12.18) : 분야별 독서전문가 14명의 위원 위촉
 -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07.8~'07.1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수행)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지자체, 독서단체, 도서관 등 분야별 전문가 회의 개최('07.11.26)
 - 기본계획안 작성을 위한 독서 전문가 심층회의 개최('08.1.30)

- 기본계획안 작성('08.2~3.18)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08.3.19~3.26), 독서진흥위원회 심의('08.3.28)
- 기본계획 최종안 마련('08.3.29~4.30)

2. 독서진흥 정책의 필요성 및 독서 여건의 문제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요인이 물질자본에서 지식자본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지식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경쟁력

- 한국의 지식축적량(1.0)을 OECD 주요국과 비교(2000년 기준)하면 미국은 우리의 17배, 일본은 7.4배, 독일은 4배 수준(OECD 국가의 대학도서관 분석과 시사점, 윤희윤(한국교육학술정보원, '04.10.)
- 국민문화생산력(총체적인 문화의 산업화·상품화 능력)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프랑스 70, 일본 63, 한국 42 수준(〈지식경제〉, 현대경제연구원, '05.8.)

독서는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유용한 방법이나, 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7년 국민독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율¹⁾은 76.7%로 성인 4명중 1명은 1년에 1권의 책도 읽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우리나라 국민의 연평균 독서량²⁾ (괄호안은 월평균 독서량) 〉

구 분	1999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7년
성인	9.3권 (0.78권)	10권 (0.83권)	11권 (0.91권)	11.9권 (0.99권)	12.1권 (1.0권)
학생	26.6권 (2.21권)	23.2권 (1.93권)	23.6권 (1.96권)	28권 (2.33권)	27권 (2.25권)

1) 1년간 1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의 비율

2) 학생은 1학기 독서량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평균 독서량으로 환산(1학기 독서량×2개 학기)

특 집

우리나라는 그동안 일부 독서관련 기관·단체와 지자체 등이 독서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부분적으로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독서에 대한 지자체별 관심과 재정형편의 차이, 독서운동을 주도하는 민간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역량의 한계 등으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독서진흥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지원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읽기진흥법」을 제정하고, 2002년 「낙제학생방지법」을 통해 읽기교육을 장려하고 있으며, 영국은 영아를 위한 ‘북스타트 운동’ 등을 통해 어릴 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생애 초기에 독서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독일은 1988년부터 ‘독서진흥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일본은 2005년 「문자활자진흥법」을 제정·시행하는 한편 ‘아침 독서 운동’, ‘가정 독서 운동’ 등을 개발하여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3. 추진방향

소통기능, 학습기능, 문화체험, 독서치료 등 독서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한 수요자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도록 하겠다.

독서장애인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골고루 활발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독서 생활 분위기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독서 관련 기관·단체간 연계와 협력으로 독서진흥 사업의 효과를 제고시키도록 하겠다. 정부와 민간단체 상호간 연계와 협력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에서는 학교, 직장, 가정 및 도서관 등 보편적 독서공간에서의 독서운동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독서진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



〈 독서진흥정책 추진체계 〉

4. 과제별 추진전략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은 4대 과제(독서환경 조성,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 추진, 독서운동 전개, 소외 계층 독서활동 지원)와 22개 단위과제, 5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민 독서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국가의 지식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기본 목표이다.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의 4대 과제별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독서환경 조성

보편적 독서활동 공간은 가정과 학교·직장·도서관 등이며, 이러한 곳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독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 중심의 주거문화 조성 지원과 가족단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가정의 독서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별 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지역의 독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 및 직장단위의 독서 환경 조성으로 국민들의 독서활동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과 문화를 콘텐츠로 하는 출판산업이 과도하게 상업주의를 지향할 경우 인문학 등 기초학문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도서 선택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우수 도서 출판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좋은 책들이 양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② 국민 독서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국민들의 연령과 수준에 맞는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독서 생활을 지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치원과 학교 및 가정과 직장 등에서 편리하게 독서활동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독서정보 종합 DB를 구축·운영하여 신간도서 정보, 독후활동, 독서교육,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독서에 관한 전문지식 등 독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③ 독서 운동 전개

독서활동의 특성상 캠페인은 효과적인 동기부여 수단이며, 정부와 민간단체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의 달(9월), 세계 책의 날(4월 23일) 등 각종 계기를 활용한 독서운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북스타트 운동 및 북크로싱 등 국내·외 우수 독서운동 사례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특 집

④ 소외계층 독서활동 지원

독서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보급 지원, 노인들의 독서활동 지원을 비롯하여 병영, 교도소 및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의 독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동 계획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08년 독서진흥 사업으로 아래의 4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아카데미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지방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아카데미 운영, 온라인 독서아카데미 시스템 개발·운영 등 독서교육사업 확대시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무료로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매년 13,000 여명이 독서교육을 받을 수 있다.('07년도에는 180명 수료, '08년 4,360명 수강예정)

△ 독서정보 DB 구축·운영

신간도서 정보, 독후활동, 독서교육, 국내·외 독서운동 사례, 독서에 관한 전문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게 독서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작년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통해 독서정보 DB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중이며, 금년중 출판계의 각종 도서정보와 연계 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독서아카데미 시스템과도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 독서장애이용 대체자료 제작·보급

단기적으로는 독서장애이용 대체자료 제작·보급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완공 예정인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내에 '독서장애이용 대체자료 제작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현재 일반도서관 장서보유량(평균 88천권)의 10% 수준인 점자도서관 장서 보유량(9천권)을 획기적으로 확대, 2017년까지는 일반도서관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독서운동 활성화

금년부터 북스타트운동을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운동은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되어 그 효과가 입증된 대표적인 독서운동이다. 지난해까지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정적·행정적 한계로 일부 지역의 신생아들만 혜택을 받아왔다. 금년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동 사업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매년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모든 국민이 독서에 대해 친밀감을 갖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북크로싱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년 상반기 중 관계기관·단체간 협의를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독서운동으로 추진, 전국적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운동은 책 읽기와 책을 이용한 놀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특성이 있다. 많은 국민들,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층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기대효과

독서 활성화로 국민의 지적 활동 수준을 높임으로써 성숙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맞는 문화수준을 확립하며 국민 행복지수를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지수 도입 필요(롤프 옌센, “드림소사이어티” 저자)

- 물질보다 문화가 더욱 중요한 시대가 도래, 사랑, 삶에 대한 만족감 등 비물질적 가치들을 척도로 삶의 질을 측정해야 하며, 국가는 일반행복지수(국민의 삶에 대한 만족감, 행복감 등을 계량화한 수치)를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해야 함

21세기를 주도할 핵심 경쟁력은 지식과 감성·상상력·창의력이며, 독서를 통해 지적·창조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재충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지식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독서 활성화를 통한 도서 소비 촉진은 출판산업의 건전한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이는 다시 다양하고 우수한 도서의 양산으로 이어져 독서 활성화와 출판산업 발전이 상호 선순환하는 구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